

I. 지권의 변동

1.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중에서 메소사우르스의 화석은 고생대 말을 얘기하는 것이다.(신생대 페이크 선지)
2. 해저 확장설의 증거 : 고지자기 분포, 해령 및 해구의 존재
3. Graph가 나오면 기울기를 해석해볼 것
4. 고지자기는 나이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것이다. 해령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있어도 양 쪽의 확장속도가 다르면 정자극기/역자극기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.
5. 일본 해구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이다. (유라시아판 vs 태평양판)
6. "심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"라는 조건이 있다면 **해양판의 확장 속도에 관계없이** 같은 시간동안 퇴적된 퇴적물의 양은 일정하다.
7. 해구에서 지진은 대륙판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(섬입대를 생각하라)
8. 판의 경계라면 그것이 변환단층이든, 수렴형이든, 발산형이든 아니면 딱히 무엇이라고 정의되어있지 않은간에 천발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.
9. 남극을 빙~ 둘러싸는 형태로 해령이 존재한다.
10. 해양판끼리 충돌할 땐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없다.
11. 열점의 마그마는 압력 감소로 생성된 것이다.
12. (아이슬란드의 경우) 열점은 가만히 있는데 판이 움직이면서 해령이 함께 움직이다가, 열점과 해령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. 이 때 열점의 그 위치에서 새로운 지각 또한 형성된다.
13.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열점이 해령보다 크다.
14. 히말라야 산맥의 지하에는 화강암질 마그마의 관입이 있다.

II. 지구의 역사

1.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작용을 속성 작용이라고 하며, 이 때 퇴적물의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한다.
 2. 암염은 무엇인가? 소금이 퇴적된 것. 소금은 NaCl. 따라서 화학적 퇴적암이다.
 3. 선상지는 육지 환경, 삼각주는 연안 환경이다.
- 난정합 : 부정합면 아래 지층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부정합

